# 원·하도급 협력 체계 변화 - 단순 수직 계열화' 탈피 조짐

## - CM 도입,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이 변화 유인, 새로운 기류에 대비해야 -

최근 건설업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제가 도입된 지난 1975년 이후 수직적 관계로 고착화된 원·하도급 업체간 협력 체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공 능력 순위 상위권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하도급 공사를 3 4개의 공종으로 묶어 한 협력업체에게 발주함으로써 협력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시공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1년 단위로 지정하는 협력업체 가운데 공종별 견적이나 경쟁 입찰을 거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고수해 온 종전 방식에 비하면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철근, 레미콘 등 기초 자재는 물론 일반 자재까지 자체 구매해 현장에서 사용토록 했던 지금까지의 자재 공급 체계도 바꿔 대부분의 자재를 하도급업체가 직접 구매토록 하는 등 협력업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다.

### 협력업체의 대형화 유도, 자율권 확대

대형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변화는 향후 종합건설업 체계인 EC가 본격화될 때에 대비해 미리 사업 관리 역량을 키우고 대신에 협력업체는 대형화를 통해 복합 공종의 시공을 감당할 능력을 갖춘 우량 업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사업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협력업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을 감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종합 건설 체계를 겨냥해 지난해 말부터 하도급 공사를 3 4개 공종으로 묶는 복합 공종 발주를 시작하였다. 자재 구매도 협력업체에게 맡기고 있다. 대림산업도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들이 복합 공종의 하도급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들 협력업체의 시공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내년 초쯤 협력업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복합 공종 발주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우건설 등 대형 업체들도 1차적으로는 현장 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일부 연관 공종에 대한 복합 발주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 건설 체계에 대비해 하도급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시공능력순위 상위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의 일반건설업체들도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해 가급적 연관 공종은 묶어 발주하는 추세이다.

### 협력 관계 변화의 배경

더욱이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규모 복합 공사의 시행 과정에서 공정, 비용, 품질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난 1999년 초에는 건설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한 공공 사업 효율화 대책에서도 건설사업관리(CM)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에 건교부가 내놓을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CM 제도가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를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말부터 대의 의령간 도로 확장 공사 등 5건의 공공 사업을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하는 CM 시범 사업으로 시행해 다양한 CM 방식에 대한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는 CM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었음을 뜻한다. 건설업계가 건설 생산 체계를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배양해 이에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이에 더해 건설 업역 조정과 하도급 체계 개편, 중소 건설업 육성 등을 건설 생산 체계 개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건설업계의 협력 관계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 단순 수직 계열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 업역 제한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일반건설업체는 건축설계업과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업역 제한 등 각종 규제가 폐지되거나 조정될 경우 건설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건설 기업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향후 건설 시장에서 상층 구조를 이룰 업체로 기술 영업 능력과 프로젝트 금융 능력, CM 능력 등을 확보해 EC(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시공 능력 순위 50위

상위권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시공 역량을 향상시켜 우량 업체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범위 내 업체를 꼽았다. 중간 그룹은 일반건축물이나 플랜트 등 특화된 시설 분야에 주력하는 일반건설업체(제네콘)이나 일반과 전문 건설업을 겸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하층부는 종합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전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 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업 영역도 종합건설업체는 기술 영업 능력과 프로젝트 금융 능력을 무기로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간 그룹 업체는 중소 규모 사업의 원도급자가 되거나 EC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부분을 재하도급 등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며, 하층 그룹은 EC 업체나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실제 시공하는 체계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건설업역 조정 및 겸업 제한 완화 등의 조치는 건설산업 생산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계열화도 종전의 단순 원·하도급간 수직 계열화 체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 어려움도 예상돼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생산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 정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현재 대형 업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복합 공종 발주의 경우 하도급 공사가 대형화되면서 면허 조건이나 시공능력평가 금액 등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고 협력업체간의 정상적인 경쟁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하도급 공사는 공종별로 최우량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야 하지만 우량 업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량 협력업체로 인정된 하도급업체가 복합 공종을 하도급받아 주력 공종만 시공하고 나머지 공종은 재하도급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건설업체는 설계 완료 후 시공 부분만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기술 영업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대형 업체들은 기술 마케팅, 프로젝트 파이낸싱, CM 등을 강화해 종합건설업체로의 변신을 서둘러야 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 업체들은 특화된 시설 분야를 설정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을 적극 추진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전문 공종의 겸업 또는 여타 전문업체와의 합병 등을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우량 협력업체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협력업체도 대형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건설업 생산 체계 개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CJ

왕영록
일간건설신문 산업부 부장